

'안전전북 구현' 올해의 비전 제시

도민안전실, 재난안전사고 제로화 도전·안전 사각지대 해소·안전문화 생활화 정착 추진

전북도가 재난·안전사고 제로화 도전과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문화 생활화 정착을 추진한다.

전북도 도민안전실은 "도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전북 구현'을 올해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지난 2년간 전국 최초 재난안전분야 조례 제정, 지역안전지수의 획기적 개선, 중앙부처 각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크고 작은 성과들을 토대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강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재난 안전 민·관 협업 및 역량 극대화' 등 20대 중점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특히, 올해를 2020 안전전북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안전분야 6대 역점과제를 중점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정책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대형 재난으로부터의 도민 불안감 해소 및 피해 최소화 위해 '재난안전사고 제로화'에 도전한다.

교통, 화재, 자살, 감염병 등 4대 분야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2018년까지 3년간 222명(연평균 사망자 수 1,279명의 17.4%) 감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올해는 안전사고 사망자수 73명(누적 142명) 감축 달성을 위해, 도시군 및 10개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4대 분야 21개 과제(334억원)를 중점 추진,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경주지진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발 빠르게 마련한 '전라북도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2020년까지 70% 이상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8차 공판 증인 출석 박현영 K스포츠택단 과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안중범 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도는 재해·재난 취약 요인 사전 제거로 안전사각지대를 조기에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화천, 급경사지 등 재해예방사업 5개 분야 117개 지구에 1,642억원 확대 투자한다.

또한, 각종 재난 등 긴급사태시 경보발령 가청음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까지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노

후장비 개선을 통해 전국 평균 수준(84.2%)으로 가청음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생활 속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도민 참여 주도형 안전문화 생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올해 안전문화 교육·캠페인 및 홍보 등을 통해 안전신문고 '앱' 가입 및 안전신고 확대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민 재난대처역량 강화를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및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도우미 양성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이현용 도민안전실장은 "모든 재난 안전정책 성공적 추진과 도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과의 재난안전 유관기관, 행정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정책 초기 단계부터 소통·협업체계를 강화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꽃가루 채취단지' 고창·장수 선정

고창군 공음면 배 1.2ha·장수군 천천면 사과 2.1ha 조성

전북도는 사과, 배의 품질 향상을 위해 역점으로 추진하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사업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사업으로 고창군과 장수군이 응모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모에 선정된 과수 꽃가루 단지는 지난해부터 전북도에서 지속적인 사업 참여 설득과 철저한 준비를 해왔으며, 공모에 선정된 고창군과 장수군은 부지 확보여부, 사업자의 사업 추진의지, 자부담 능력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고창군 공음면 일원에 배 꽃가루 단

지 1.2ha, 장수군 천천면 일원에 사과 꽃가루 단지 2.1ha가 조성되며, 세부 지원 내용은 생산기반 조성과 채취기, 정선기 등 기자재를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4억6,000만원으로 이중 50%는 국비로 지원한다.

매년 사과, 배의 수분을 위한 꽃가루 공급은 값싼 중국산 꽃가루에 의존하다 보니 검증되지 않은 불량 꽃가루의 유통으로 안정 결실에 위협을 받아 왔다.

이에 도는 과수 생산성 향상과 결실 안정을 위해 자체 꽃가루 채취단지를 적극 발굴해 올해까지 조성될 면적은 총 6.5ha이며, 도내 단지에서 생산한 꽃가루는 사과·배 과원 520ha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도, 사료구매자금 439억원 용자지원

전북도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439억원을 연리 1.8%,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용자 지원한다.

지원하는 자금의 용도는 신규 사료 구매 대금과 기존 외상금액의 상환이며,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금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와 소규모 영세농가에 자금을 우선 지원하며 축종별로 지원한도는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는 6억원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는 9억원), 사슴·말·산

양 등 기타가축은 9,000만원으로 마리당 지원단가와 사육마리수를 곱해 지원금액이 산정된다.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에서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농가사료구매자금신청추천서를 발급받아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축산 강대국들과의 FTA체결 등으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많은 농가가 사료구매자금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마을방송' 설 연휴 AI 차단 홍보 성과

설 연휴 기간 동안 도내 AI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자동음성통보기능을 갖춘 마을 방송'을 비롯해 다각적인 방역 홍보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연휴기간에도 도와 전 시·군에서 AI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설 명절 귀성객이 대거 도내를 방문할 경우를 대비해 AI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 실시했다.

14개 전 시·군에서는 연휴 전부터 고속 및 일반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51개소에 발판 소독조를 설치해 운영하고, 현수막을 436개소에 게시함과 동시에 고속도로 전광판 10개소에 홍보 문구를 띄웠다.

이들러 연휴기간 동안 자동음성통보 기능을 갖춘 마을방송을 매일 1~2회 실시하고, AI 발생가능성은 물론

주변 도로, 철새 도래지 주변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하는 등 AI 차단 홍보 및 방역 대책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북도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활용한 '마을방송'이 홍보 및 재난·예·경보 효과가 큰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향후 자동음성통보 마을방송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에는 총 4,964개 마을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이·통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순 마을 방송 3,731개소와 도 및 시·군 상황실에서 일괄 방송이 가능하고 휴대전화 문자 수·발신이 가능한 마을방송 1,23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AI차단 홍보를 계기로 시·군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정부 차원의 예산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활성탄소제품 토탈 솔루션 지원사업' 추진

내년까지 20억 투입 40여개 기업 대상... 제품 공동 기술개발·인증취득 지원 등

전북도는 탄소산업 육성정책 일환으로 활성탄소기업의 제품 공동기술개발 및 인증취득 지원 등을 위한 '활성탄소제품 토탈 솔루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내년까지 총 2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GS칼텍스, 비나텍, 애경유화, 크린앤사이언스, 불스원 신소재 등 약 40여개의 도내 활성탄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활성탄소 세계시장 규모는 2015년 5.4조원에서 2025년 약 15조원 이상의

성장예 예상되고 있다. 국내시장은 약 1조원 규모로 친환경 수요 확대 및 전기·전자·에너지 산업 발전과 맞물려 매우 빠른 성장세(연 8%)에 있다.

그러나 수처리용 제품은 중국에서, 대기환경 및 에너지 저장 제품은 일본과 미국에서 수입하는 등 국내 시장 80% 정도를 수입에 의존중이다. 활성탄소는 우리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기·수질 정화 필터와 전기·전자 부품인 축전지(수퍼 커패시터), 각종 센서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탄소소재의 한 종류다.

활성탄소의 독소 및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기능을 활용해 수질 및 대기 정화 필터 소재로 폭넓게 활용중이 있으며 앞으로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에 따라 필터산업 분야가 가장 큰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 수소연료전지차 등과 같은 친환경차와 정밀산업 스마트미터, 신재생에너지, 드론,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에너지 저장장치(수퍼 커패시터) 소재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국내

많은 회사들이 활성탄소 이용기술과 제품 개발을 진행중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통해 진행되며 고성능 활성탄소 핵심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및 제품인증 기반구축,시험분석 및 애로기술 컨설팅, 채용연계형 인력양성 및 마케팅 지원 등 활성탄소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활성탄소는 이미 환경, 에너지, 전기전자, 자동차산업과 같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중이 있다"며 "앞으로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에 따른 수요 상승에 대비해 도내 활성탄소 기업들의 기술역량과 시장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동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정읍시 공고 제2017-94호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지정계획(변경)(안) 열람공고

정읍시 고시 제2013-87(2013.11.29.)호로 지정된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지정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명 칭 :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지정계획(변경)(안)
 - 위 치 : 정읍시 소성면 신천리 23번지 일원
 - 면 적 : 232,000㎡
 - 사업시행자 : 정읍시
- 주민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17년 01월 24일 ~ 2017년 02월 13일
 - 공람장소 :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 소성면사무소
 - 내 용 : 배수시설 추가 변경
- 기타사항
 - 이해관계인의 개별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의견 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열람 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 063-539-5672), 소성면사무소(☎ 063-539-72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9. 정읍시장

무주군 공고 제2017-96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가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하여 「농지법」 제31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2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 건명 : 무주군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한 열람 공고
- 주요내용
 - 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 대상지 : 무주군 농업진흥지역 전 토지 나. 변경·해제 면적 : 35.9ha(변경 24.3ha, 해제 11.6ha) 다. 변경·해제 목적 :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안 관련 도서 : 게재 생략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7. 2. 1. ~ 2. 15.(15일간)
- 열람 장소 : 무주군청 농업소득과(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필지별 조서 및 정비 도면은 열람 장소와 무주군 홈페이지 (http://www.muju.go.kr/(고사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의견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농업소득과(☎ 063-320-2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해제 필지조서 등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변경·해제 대상 필지가 방대하여 개별통지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017. 2. 1. 무주군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

유한회사 명일건설